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Rev.

이종윤
Lee, Jong 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배의 개혁”

(The reformation of worship)

■ 신명기 4장 1-7, 23-24절 요한복음 4장 23-24절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John Calvin)은 구원 교리에서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구원을,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순수한 성례를, 교회에서 성경적 삶을 개혁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I. 예배가 변하고 있습니다.(Changes in worship)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의식을 강조한 high Anglican Church에서 charismatic 오순절파식 예배로 변하고 있습니다. ①오늘 교회들이 예배에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춤, 드라마, 유머가 담긴 존극, 시각적인 film 성령 웃음과 심지가 튀긴 옥수수(popcorn)를 먹으면서 운동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교회의 전통적 예배 특성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봉독과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설교는 심리적, 실제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상징성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③교회 음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팝(pop)음악이나 락(rock)음악으로, 악기도 징, 장구, 탬버리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④예배인도를 찬양인도자나 평신도가 하고 있습니다. ⑤예배시간을 토요일로 변경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II. 깊은 생각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Change without reflection)

①오늘 예배의 변화는 많은 이들이 공예배를 주변적인 것, 무익한 것, 지루한 것,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칼빈(John Calvin)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함께 모여 설교를 듣는 것이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②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도'라는 이유로 세속적 방법(흥미·오락 중심)을 예배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③훈련된 목사 대신 평신도가 설교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찬송가 대신 복음송이 예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④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카리스마적 예배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⑤오늘 소위 민주와 개인주의, 반지성적, 실용주의, 낙천주의 풍토에서 예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죄,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⑥많은 교회들에서는 '전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예배라기보다 실용주의적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III. 예배신학과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롬12:1-2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자신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신6:4-9절). 또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공적 모임인 것입니다(행2:42절, 히 10:25절).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드러지는 공예배에 첨가된 새로운 요소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②전통적 예배요소를 변화시킨 것을 다시 바르게 개혁해야 합니다. 강해설교, 성경을 감사, 존경으로 읽고, 기도와 성례전을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역사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③교회 음악, 특히 공예배를 위한 음악에서 기쁨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의(reverence)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④만민 제사, 민주주의 명목으로 은사도 부르시도 없는 이가 훈련도 없이 강단에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하나님에 주신 직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⑤예배시간을 변경(토요일)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계1:10절).

맺는 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교리와 삶, 그리고 예배의 개혁을 외치며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개혁이 우리 서울교회부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 III, IV층
		분 반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II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 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 III, 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903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I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IV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에 바 다 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II 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II 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III 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소요리문답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신앙강좌 I·II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 V	위성 채널 412 (CBS 기독교 방송) 매주 주일 오후 9시 (케이블 채널 시청가능지역 있음)	
	위성 채널 414 (CTS 기독교 TV)	
라디오	케이블 채널 37 (CTS 기독교 TV)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HLKY 98.1 MHz (기독교 방송) 청사경배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인터넷	HLKX 106.9 MHz (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기독교 TV : http://cstv	
	CBS인터넷설교 : http://cbs.co.kr	
중국어인터넷 : http://c-highway.com		KISB 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		

(전도)목사 박노철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성남 노현성 황광 박종민 문정훈 유문건 박광일 전도사 지혜영
 영아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임규현 김인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꿈·주한나, 서홍원,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키자흐스탄)
 스페르토티보어, 조남해(앵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박진아·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원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명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양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군산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구희숙(학원선교), 이선희(병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Le Hnin·May Kya(미얀마)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한 해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은혜도 크고 놀라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겠지만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빈손을 들고 17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노현동 6층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고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반포동 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대치동에 서울교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감사할 것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 십 년 동안에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17년 짧은 세월동안에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미진하고 온전치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며 우리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까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앞에 전개되는 새 세계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한숨 대신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실의와 좌절대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개척자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선장군처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이가 있듯이 우리 중에 흑이라도 특대를 받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감사해야 할 감사보다 자신은 천대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군 다윗은 국토를 확장하고 국위를 사해에 선양하며 여호와와 이름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후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었다고 불평하는 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일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들로 만들어야 하며 내가 서있는 모든 곳을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배

-교회של립 19주년 감사-

선교사 파송식 11대집사·10대권사 임직 협동권사 취임

오후 5시 ·인도 이종운 목사 ·설교 이광순 목사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박광일 목사	박광일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한상은 목사	김영준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영기 장로

묵 도	다 함	개
성 시 요 11:40	인 도	자
* 찬 송 210(245)	다 함	개
기 도	박노철	목사
성 경	... 전 11:1, 마 4:18-22	인 도	자
헌 금 Grace Hand Bell	다 함	개
찬 양	배돌래	찬양대
설 교	"나는 네 맥을 물 위에 던져라"	설 교	자
	선교사파송, 집사·권사임직, 협동권사 취임식	말 은	이
* 찬 송 323(355)	다 함	개
* 축 도	이종운	목사

일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개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개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5(감사절①)	다 함	개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개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5(25)	다 함	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9:37-40, 시 138: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개
헌 금, 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함	개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개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개
설 교 Sermon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종운 목사		
	(Praise Thy God, O Zion!)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 591(310)	다 함	개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박천희 권사, II부: 배은희 권사
성 경 온 39-10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설 교 자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홍혜란
설 교 박노철, 박광일 목사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
설 교 황 광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열렸다 하늘문이	박정선	유태왕	오자경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열렸다 하늘문이	박정선	고성진	김현정11	김영민	박광서
III부	입마누엘	열렸다 하늘문이	박정선	류종기	강민정1	양경실	이하진
찬양예배	배돌래팀	열렸다 하늘문이	박정선	김낙형	오신욱	홍혜란	
영어예배	예루살렘	추수감사절(성찬식) 관례로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수요 I부	은 빛	하나님께 영광	Arr. by Lee Rogers	박래경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최후의 날	G. A. Rossini	백경화	이순제	변지원	
<헌금송>							
I부	고 등 부	하나님께 감사하세	Myra Schubert	한현숙		박승기	
II부	그레이트스탠드립	Give Thanks	Lloyd Larson	송재일			
III부	이랜관현악단	주 예수 넓은 사랑	W. G. Fisher	임병장			

교회소식

모임

- 제2권사회 직장인 기도회 / 28일(주) 3부예배 후 903호
- 14교구 교구일꾼수련회 / 29일(월) 오전11시 교회출발(분당)
- 살롱권사회, 제1·2권사회 총회 / 12월1일(수) 오후1시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 제1·2스테반회 총회 / 2일(목) 오후7시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 목회정책발표회 / 3일(금) 오전7시 교회출발(아기페 타운)
- 전 도 / 28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력 - 엘리아 선교회·에스더 전도회, 70인전도대 인솔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9일(월)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 30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상성, 도곡역출,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1-park, 삼성동원스퀘어, 개포주공)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
- 12월1일(수)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에스더 전도회(104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제1, 제2 스테반회(한티공원)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
- 2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파, 미도, 청실, 대차현대, 역삼라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 3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 4일(토) 오후 3시 교역자회(한티공원)
 오후 3-5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엘리아 선교회(한티공원)
- 금요기도회 / 12월3일(금) 오후 8시 30분 - 101호 주력: 제2권사회(▶10시부터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102호)

알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킵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일예배와 주일오후 천왕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동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교회설립기념주일·추수감사절 / 오늘(28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기념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천왕예배 시간에는 2010년 선교사 파송식, 11대 집사·10대 권사 임직식, 협동권사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학습·세례식 / 12월 학습·세례식이 12월15일(수) 수요 1,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매주 I·II 부 예배 후 602호에서, 세례 및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은
 매주 I·II 부 예배 후 609호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12월4일(화) 오후 7시 602호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 → 세례준비반
-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12개월 이하 영아를 맡음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월-4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5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돌봅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일제심방 / ·11월30일(화): 9-12, 13-24
 ·12월2일(목): 13-26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임재만	9-9	안드레	박정임	박은숙	11-5	루디아	임명숙/이영선	이승현	13-10	고등부	본인
이원석	13-10	안드레	본인	김진현	13-10	안드레	본인	배성윤	교육	유치부	본인
전명남	16-5	루디아	곽태수/유요종/서중숙	조은영	5-5	도르가	이승훈	배은준	1국	영아부	본인
박성임	1-16	루디아	이소연/최유진	채민정	16-6	대학부	박이선/장선아	내가 믿으면 여러분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설치환(정신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8971-3191

☞ 결혼

1. 이현석 군(청년부, 이등테 배춘자씨의 장남)과 니소정 양(7교구 하나님의교회 장로 박윤혜 권사의 장녀)
/ 12월4일(토) 오후1시30분 서울교회

☞ 장례

- 1.故 김형금 권사 (10교구 신장호 성도 모친, 송해숙 권사 시모) / 24일(수) 별세 26일(금) 발인
- 2.故 김순애 성도 (1교구 박순자 권사 모친, 오재면 성도 장모) / 25일(목) 별세 27일(토) 발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문이 열려야

제대로 된 문이라면 필요한 때에 열려져야 하고 닫히기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이 시대에 열려져야 할 문은 닫혀진 휴전선 문이 아니고 그 문을 닫아 놓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도 너희 마음 문을 넓혀라(고후 6:11)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닫혀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타인도 불신하게 됨으로 그 마음은 점점 더 좁아만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계 3:20) 팔천만 우리 동포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리의 복음 이외엔 우리 마음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이종윤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일성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